

## 학봉종택 家圖의 분석을 통한 18세기 종택의 이건계획 및 건축적 특성

유 기 원

(공학박사)

김 기 주

(한국기술교육대 건축공학과 교수)

주제어 : 가도(家圖), 학봉종택(鶴峯宗宅), 이건(移建)계획, □자형 주거, 안동(安東)

### 1. 서론

경북 안동의 의성김씨 학봉종택은 퇴계의 제자이자 임진왜란 때 경상도초유사로 활약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종택으로 '鶴峯宗宅'이라는 당호는 그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400년이 넘는 종택의 역사에 걸맞게 학봉종택에 관한 각 학계의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학봉 김성일이나 서산(西山) 김홍락(金興洛, 1827~1899)과 같은 출중한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되었고, 이들이 저술한 역사적 사료가 풍부하면서도 제사나 민속과 같은 전통생활양식까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사 분야에서는 학봉종택이 학계의 큰 관심은 끌지 못했는데, 1964년 현재의 장소로 이건할 당시 많은 부분을 새 부재로 교체하면서 이건 전의 모습을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게 학봉종택에 대한 건축적 관심이나 연

구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학봉종택의 18세기 후반 이건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가도(家圖)를 접할 수 있었다. 보물 제906호로 지정된 '학봉 김성일 종손가 소장 고문서'<sup>2)</sup> 중 종택의 이건과정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도는 학봉종택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봉종택 소장 가도를 분석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던 이건과정에서 건축가로서의 사대부의 역할과 건축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고, 조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가도의 세부적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평면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봉종택 소장 가도 중 종택과 관련된 4점의 가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sup>3)</sup> 이들 가도에는 모두 제목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 김기주 : 교신저자 (kjkim@kut.ac.kr)

1)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봉종택에 소장된 전적문서와 유물 등이 보물 제905호와 제906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그보다 격이 낮은 경상북도기념물 제112호(1995년 12월 1일)로 지정되어 있다.

2) 학봉종가에 전하는 고문서 17종 242점을 일괄하여 지정하였다. 이들 17종 중 설계도(設計圖)라 명칭된 것이 가도(家圖) 4점, 정자도(亭子圖) 2점, 위치도(位次圖) 2점의 8점이다. 이 중 종택 가도 2점과 정자도 1점은 복사본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3) 종택 가도 외 정자와 관련된 2점의 도면에는 소요 자제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如斯軒'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하나에는 제목이 없다.

가도의 완성도에 따라 임의로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가도의 분석과 아울러 현지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sup>4)</sup> 다각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였으며, 가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sup>5)</sup>를 참고하여 가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 학봉종택 소장 도면

가도	건축형식	규 모	도면크기
1	종택	본채 8×6칸*	35.5×29.7cm**
2	종택	본채 6×7.5칸*	39.7×40.0cm
3	종택	본채 6×8.5칸*	35.0×38.5cm**
4	종택	본채 6×7.5칸* 별채 5×7.5칸 대문채 9×1칸	62.1×40.6cm
5	정자 (如斯軒)	정자 3×2칸 주사 4×2칸	41.8×25.6cm**
6	정자	정자 2×1.5칸	24.2×16.1cm

\* 돌출부 제외 \*\* 복사본

## 2. 금계마을과 학봉종택의 이견

### 2-1. 금계마을

금계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와 성곡리, 그리고 주변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마을의 북쪽에는 천둥산의 제2봉인 상산과 주봉산이 있고 여기에서 산줄기가 각기 남동쪽으로 흘러 마을을 삼면에서 감싸고 있다. 금계는 상산과 주봉산에서 발원하여 동서의 작은 산에서 흘러온 지류와 만나 형성된 하천으로 영주 쪽에서 흘러온 사천과 마을 입구에

4) 현장답사와 면담은 2008년 12월 19~20일과 2009년 1월 7~9일, 4월 24~25일 3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면담자는 김종길(1941년 생, 현 종손, 학봉종택), 김종성(1951년 생, 성남 분당), 김용수(1940년 생, 안동), 김장규(1936년 생, 안동 서후 금계) 등이다.

5)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① 1675년에 제작된 「효경당계축문」의 가도(안준호 외2), ②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문내구윤옥가도형」(정정남), ③ 19세기에 제작된 「전라구례오미동가도」 및 1916년에 제작된 「오미동와가구시전도」(박익수 및 최수영 외2), ④ 1900년 전후에 제작된 「백당구계가도」외 2점(이호일) 등이 있다.(참고문헌 참조)

서 합수된 후 낙동강의 본류와 만난다. 이런 자연환경에 따라 금계마을은 금계의 본류와 지류 주변에 형성된 소규모 마을들로 이루어진 산촌(散村)의 성격을 갖는다.<sup>6)</sup> 즉 금계마을의 공간적·정서적 중심에는 금계가 자리 잡고 있다.

「영가지」에 ‘천년 패하지 않는 땅’<sup>7)</sup>이라고 할 만큼 금계마을은 오래전부터 길지로 알려져 있다. 마을 북쪽에는 봉정사와 개목사가 있고, 삼태사의 묘소가 모두 마을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 지역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금계마을에 입향한 문중은 흥해배씨, 경주이씨, 안동권씨, 원주변씨, 안동장씨, 의성김씨 등으로<sup>8)</sup> 주로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에 입향한 문중이다. 이 시기의 결혼습속에 의하면



<그림 1> 금계마을의 환경 및 문중별 건축유적 (지명은 「금계지」 坊名조 참조)

6) 이런 마을의 형상을 두고 예로부터 ‘열두 겹제는 말로 들을 겹제이지 눈으로 볼 겹제는 아니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김용수 편저, 「김계(金溪)마을」(의성김씨 금계문중자료집, 영남사, p.6)

7) ‘金地村...古稱千年不散之地...’, 「永嘉誌」 各里조

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금계마을-천년불패의 땅」, 예문서원, pp.43-51, 2000.10

결혼 후 남자의 거처는 처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sup>9)</sup>, 금계마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계의 의성김씨 입향조인 김성일은 김진<sup>10)</sup>의 넷째 아들로 처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처가가 있는 금계마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김성일이 입향한 16세기 말 이후로는 적장자(嫡長子) 중심의 상속제가 일반화되면서 의성김씨는 조선 중기 이후 금계마을의 중심 문중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금계마을에 남아있는 종택들은 주로 금계의 본류 주위에 터전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성김씨는 상류의 안동장씨와 하류의 원주변씨 사이에 주로 위치하며, 학봉종택이 공간적으로 마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2. 학봉종택의 건립과 이건

### (1) 금계 이거(移居)와 종택의 건립

『학봉집』 연보에 의하면 김성일은 1582년 부친의 3년상을 치르고 둘째형인 귀봉(龜峯) 김수일(金守一, 1528~1583)과 함께 백운정(白雲亭)<sup>12)</sup>에 머물다 안동의 서쪽 금계로 이거하였다고 한다.<sup>13)</sup>

9) 박석인,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10) 학봉의 부친 청계(靑溪) 김진(金璉, 1500~1580)은 내앞(川前)마을의 중흥조로서 본인은 비록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세를 일으키고 아들 다섯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면서 가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내앞 대종택을 '五子登科宅'으로 부르기도 한다.

11) 김성일의 장인 권덕항(權德愷) 역시 홍해백씨와의 혼인으로 금계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김성일이 금계로 이주하여 처부모를 봉양하였다는 사실이 일란 중 진주에서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금계마을-천년불패의 땅』, pp.48-49)

12) 백운정(경북 문화재자료 제175호)은 천전 종택의 서남쪽 부암에 있는 정자로 『鶴峯輯』 연보에 의하면 판서공(김진)이 자리를 잡고 귀봉공(김수일)이 건축하였다고 한다.(亭在川前南傅巖上 判書公所卜 而龜峯公所構也 北對家廟 南望松楸)

[표 2] 학봉과 종택 가제도 및 건축조영

대	종손명	생몰년	호	주요 건축조영
과조	誠一	1538-1593	鶴峯	1582년 금계 입향, 1587년 石門精舍 창건
1	漢	1558-1631	愛景堂	枕湖亭(소유)
2	是樞	1580-1640	端谷 風雷軒	鶴峯宗宅 창건, 風雷軒
3	燧	1602-1685	松軒 定跟齋	止水亭 如斯軒
4	世基	1622-1686	如斯軒	
5	以錕	1646-1697	古愚	
6	淑濂	1689-1705		
7	柱國	1710-1771	撤土齋	
8	光燦	1736-1765		
9	宗壽	1761-1813	聽松	종택 이건
10	鎭華	1793-1850	坦窩	종택 증축, 풍뢰헌 이건
11	興洛	1827-1899	西山	1878년 西山齋 창건
12	應模	1853-1869		
13	龍煥	1887-1946		1934년 郡溪書堂 창건
14	時寅	1917-2008		1964년 종택 재이건
15	鍾吉	1941-0000		

당시 이거는 공의 나이 45세 때 일로서 처부모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비로소 김성일이 처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거 이후 곧 김성일은 의정부 사예로 환조하고 이듬해에는 나주목사로 제수를 받아 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제 금계에서 생활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다만 1586년 12월 나주목사에서 해임된 후 1588년 7월 조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등

13) 『服闋 與仲氏龜峯公 守一屏居于白雲亭...有白雲亭十二詠移居于府西金溪里』 『鶴峯輯』. 그러나 『金溪志』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학봉이 원곡(남실)에서부터 이곳 금계로 왔다고 하였다.(...壬午(1582)七月 自嶺谷移來...) 원곡은 천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학봉집』 연보에는 '別業'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 급계에 머물며 여러 일에 관여하고 유람도 하였다.<sup>14)</sup> 그리고 임진왜란을 맞이하였고 결국 이곳 급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이던 1593년 진주 공판에서 병사하였다. 이처럼 김성일 대에는 종택을 건립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아들 김집(金滌, 1558~1631)대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학봉종택은 그의 손자인 김시추(金是樞, 1580~1640)대에 처음으로 건립되었음을 다음 「금계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不遑室居 經歷公令堪輿僧性智 卜宅於杏亭上 艮坐坤向 寶是構堂 軒曰風雷 齋曰永慕...<sup>16)</sup>

이 기록에 따르면 경력공(김시추)이 당시 감여승이었던 성지(性智)<sup>17)</sup>로 하여금 길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택의 터를 행정(杏亭) 위에 잡



<사진 1> 사당터에서 본 전경

14) 「鶴峯樞」 연보를 참조하여 당시 김성일의 행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87년(선조 20), 선생 50세  
1월: 외가 선영 성묘(청송 안덕)  
2월: 주왕산 유람, 교암대(橋巖臺) 쌓음, 선산 성묘(경술산), 상락대(上洛臺)와 고산정(孤山亭) 유람  
3월: 석문정사(石門精舍) 신축(8월 완공)  
8월: 성산(청성산)의 절 유람  
겨울: 천전 종가에 불이 남. 중건역사 감독함.  
1588년(선조 21), 선생 51세  
2월: 석문정사 서쪽에 벽오동과 홍도를 심음.  
6월: 퇴계선생문집 교정

15) "...洗馬府君又棲於狼谷雲谷等地...", 「金溪志」

16) 「金溪志」 第宅沿革조

17) 「光海君日記」 11년(1619년) 4월25일조에 보면, '중루를 건축역사연구 제18권 3호 통권64호 2009년 6월

고, 간좌곤향(艮坐坤向)<sup>18)</sup>으로 건물을 앉힌 후 '풍뢰헌(風雷軒)'과 '영모재(永慕齋)'라는 당호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종택의 터를 잡았던 곳이 현재 학봉종택이 있는 곳이라고 전해질 뿐 당시 종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2> 학봉종택의 위치 변화

## (2) 종택의 이건 및 재이건

학봉종택은 학봉의 손자 김시추가 창건한 이후 두 번 이건하였는데, 그 중 첫 이건에 대한 기록이 「금계지」에 보인다.

"...至縣監公宗壽 移卜于茗福山下 亥坐巳向..."<sup>19)</sup>

여기에서 9대손인 현감공 김종수(金宗壽, 1761~1813)가 소복산 아래로 종택의 터를 옮기고 건물을 해좌사향(亥坐巳向)<sup>20)</sup>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복산 아래의 종택 터는 현재 학봉종택이 있는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당시의 사랑채(현 소계서당)와 사

옛 터에 지을 것이니...성지에게 가서 상세히 문의하라'고 전교하면서 성지를 풍수를 조금 아는 영남의 승려이며 개해년 반정 후 죽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의 승려 성지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된다.(傳曰 "鐘樓造於舊基...詳問于性智以啓" 性智卽嶺南僧人 薄曉風水...至癸亥反正後 誅之)

18) 현 학봉종택의 좌향과 동일함

19) 「金溪志」 第宅沿革조

20) 현 소계서당(구 사랑채)의 좌향과 동일함

당터<sup>21)</sup> 등이 남아있다. 위의 기록으로는 정확한 이건축 시기를 알 수 없는데, 10대손 김진화가 이건축한 종택에서 태어났다고 한 것<sup>22)</sup>으로 미루어 이건축 시기는 김종수가 태어난 1761년에서 김진화가 태어난 1793년 사이로 볼 수 있다.<sup>23)</sup>



<그림 3> 확봉종택 현황 배치평면도  
(출처: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안동금계마을-천년불타의 땅』, 예문서원, 2000, p.227)



<그림 4> 사당터, c자집 및 현 소계서당(구 사랑채) 배치평면도

- 21) 현 소계서당(구 사랑채)의 후면 산록 사당터에는 기단 석과 초석 등이 일부 남아 있다.
- 22) '三十世 진화(鎭華) : 자는 성관(聖觀)이시고 호는 탄와(坦窩)이시니...부군이 정조 17년 계축(1793) 6월24일에 소복산(召福山) 밑 종택에서 나시었다...', 경사유방 편찬위원회, 『景泗流芳』, pp.362-363
- 23) '...선생의 8대손 김광찬 공이 영조 38년(1762년)에 현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자리에 새로 종택을 건립하였다...'라고 하였지만(김용수 편저, 『검계(金溪)마을』, 영



1956년 설날



1956년 설날



1956년 사랑채 앞마당



1950년대 사랑채

<사진 2> 1964년 재이건 전

이후 10대손 김진화(金鎭華, 1793~1850)가 말년에 원주에서 돌아와 종택을 더 넓히고, 풍뢰헌을 집 동쪽으로 이건축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풍뢰헌을 어느 곳으로 옮겼는지 명확하지는 않다.<sup>24)</sup> 다만, 김진화의 이력으로 보아 증축과 이건축 시기는 1842년~1846년 사이로 판단된다.<sup>25)</sup>

1934년에는 종택을 이건축하고 비어있던 현 종택의 위치에 11대손 김홍락을 기리기 위한 소계서당을 건립하였으며,<sup>26)</sup> 1964년에는 원래 종택

남사, p.13) 그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 24) '...子牧使公鎭華 自原州歸老 益拓而大之...又移建風雷軒於宅東 杏亭舊宅 只餘祠廟正寢 今爲門子弟錄業之所' (『金溪志』 第宅沿革조)
- 여기에서 풍뢰헌을 이건축한 '宅東'이 어디인지, '杏亭舊宅'이 어떤 집을 가리키는지, '祠廟'와 '正寢'만 남았다는 점이 어떤 집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金溪志』의 저자 김현락(1826~1877)이 기록할 당시 풍뢰헌을 소복산 아래로 이건축하였다고 하였으므로(在碧樹亭上 端谷金公 卽其居第之前堂 扁以風雷又號永慕...今移建于召福山下), 풍뢰헌이 창건한 곳에서 소복산 아래로 이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문중에 '의병장 이강년(1858~1908)이 타고 온 말을 만지송(萬枝松)에 매고 풍뢰헌에서 13대손 김용환을 만났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를 근거로 가도4와 같이 만지송과 c자집 사이에 풍뢰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김종성(1951년 생, 성남 분당)>, 확실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사진 3 참조)
- 25) 경사유방 편찬위원회, 『景泗流芳』, pp.364-366
- 이 기록에 따르면 원주관관 부임 기간은 1841년~1842년 이고, 1846년에 무장현감과 1847년에 능주목사를 연달아 제수받고 1850년 병사할 때까지 주로 외지에 머물렀다.
- 26) '西山先生啓于足之三十有四年士林爲築八架屋...'



이 있었던 현 위치로 종택을 재이건하였다. 이때 현 학봉종택의 안채 위치에 있던 소계서당을 새 종택의 사랑채 부재로 다시 사용하고, 당시 사랑채 건물은 이기지 않고 소계서당으로 삼았다.<sup>27)</sup> 그리고 1964년의 재이건 당시 건물의 배치는 현재와는 달리 사당과 口자형 본채, 부엌 옆 一자형 부속채만 있었다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봉종택은 약 400여 년 동안 두 차례의 이건과 재이건이 이루어졌는데, 이건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중에서는 18세기 말의 이건이 잦은 하천의 범람 때문이었다고<sup>28)</sup> 하지만 문헌으로 전하는 바는 없다. 그렇지만 이건과 재이건의 전 시기에 대가 끊기는 공통점<sup>29)</sup>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집안의 길흥을 집터의 풍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당시의 생활풍속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sup>30)</sup>



1930년대 말 외부 담장 설치 전



1970년대 외부 담장 설치 후



1977년 본채



1977년 구 사랑채와 만지송

<사진 3> 1964년 재이건 후

(「御溪書堂記」 「西山全集」)

27) 김종성(1951년 생, 성남 분당)씨에 따르면 1964년 이건 당시 현 학봉종택의 사당이 있던 자리에 옛 사당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종택터의 지대가 낮아 땅을 들운 후 이건하였는데, 인근의 타 문중에서도 종택 이건에 인력과 재물을 보내어 부조(扶助)하였다고 한다.

28) 김용수 편저, 『점제(金溪)마을』, 영남사, p.13

29) 15대 중 7대와 12~14대 총 4대가 양자를 들어 입후(立後)하였는데, 이중 7대는 18세기 말 이건 전, 12~14대는 1964년의 재이건 전에 해당한다.

### 3. 가도의 제작과 표현특성

#### 3-1. 가도의 제작

학봉종택에 전하는 4점의 가도의 제작 배경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근거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추정해 볼 수 있다.

4점의 도면은 창호의 표현방법, 실명(室名), 필체, 이체자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4점의 가도를 그린 것으로 보아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획도면의 성격이었음을 반증한다.

이와 같이 계획안 성격의 가도가 필요한 시기는 학봉종택의 창건(손자 김시추 代)과 이건 시기(9대손 김종수 代)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1)</sup> 이중 가도의 제작시기를 이건 당시로 보는 것은 가도의 전체적인 형태가 현 학봉종택, 즉 재이건 시 그대로 옮겨왔다고 하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가도의 평면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1964년 재이건 직전 학봉종택의 평면과 공간구성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가도는 이러한 평면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존하

30) 11대손 김홍락은 생전에 아들이 없어 김응모(金應模, 1853~1869)를 양자로 들였으나 17세로 요절하였고, 다시 대를 이은 13대손 김용환(金龍煥, 1887~1946)은 파락호로 위장하고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14대손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은 종택 터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입후(入後) 조건 중 하나로 재이건을 주장하였다고 한다.(김종성, 1951년생, 성남 분당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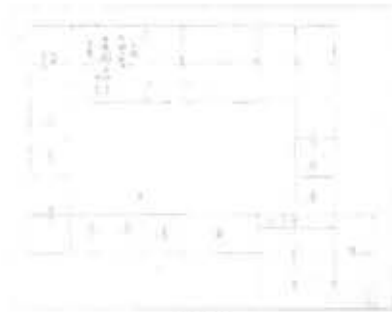
31) 1964년 재이건시에도 계획안 성격의 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재이건 계획은 입후가 논의되기 시작한 1945년부터 재이건한 196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가도가 제작되었다면 제작자는 재이건을 주장한 14대손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일 것이다. 그러나 현 종손이나 면담자들이 가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최소한 재이건을 위해 제작된 가도는 아니다.

는 건축물들과 가도를 비교하면 구 사랑채(현 소계서당)를 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가도4의 배치상황 중 사랑채와 별채인 ㄷ자집, 일부 담장과 일각문 등이 현재 남아있는 재이건 전 모습과 일치하는 것에서도 18세기 말 이건 당시 가도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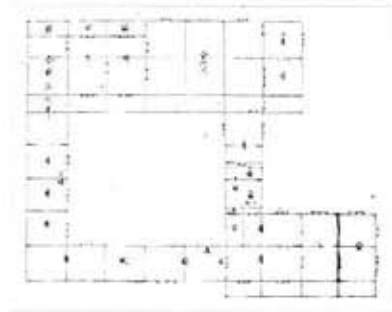
한편, 이상에서와 같이 18세기 말 종택의 이건을 고려하며 이들 4점의 가도를 제작하였다면 가도는 이건을 주도하였던 9대손 김종수(金宗壽, 1761~1813)가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8대손이었던 김광찬(金光燦, 1736~1765)이 가도의 제작과 이건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병약하여 10여 년을 앓다가 30세의 나이로 요절<sup>32)</sup> 하였으므로 주도적 위치에 있기는 힘들고 오히려 7대손 김주국(金柱國, 1710~1771)이 계획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여 가도제작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3-2. 표현특성(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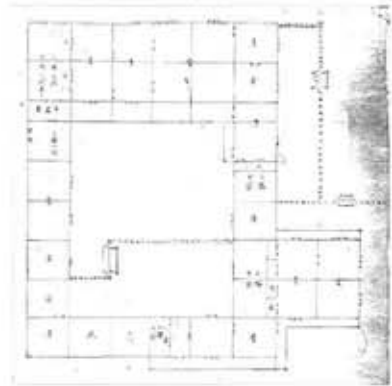
가도1, 2, 3은 본체만을 표현하였고, 가도4는 본체와 함께 별채와 대문채를 함께 표현한 도면이다. 가도1, 2, 3에 별채와 대문채가 생략된 것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본체의 계획에 치중한 까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체의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본체를 어떠한 형식으로 건축할 것인가가 당시 이건을 주도하였던 종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여러 가지 계획안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안채의 형식을 어느 정도 결정한 후에 가도4에서와 같이 대문채와 별채를 함께 그려 표현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가도의 표현특성 및 기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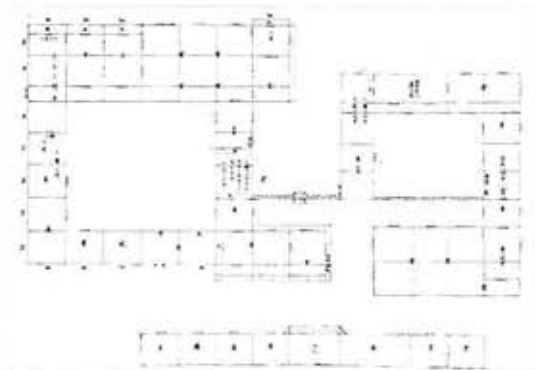
가도1



가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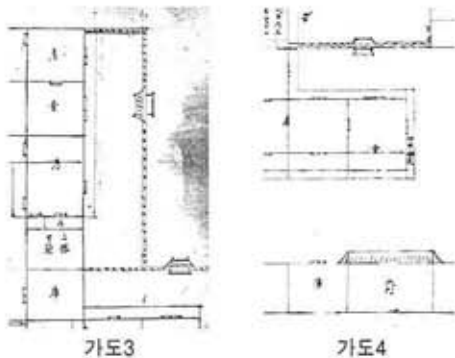
가도3



가도4

<그림 5> 학봉종택 소장 가도

32) 경사유방 편찬위원회, 『景泗流芳』, pp.360-361 참조



<그림 6> 담장과 문의 표현기법

(1) 공간 분할과 축척

가도에서 공간 분할은 크게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부공간의 분할은 담장과 문을 표현함으로써 구획하고 있음을 가도에서 보여준다. 특히, 가도4에 표현된 대문은 평면 위쪽에 지붕만을 그려 넣어 솟을대문을 연상케 한다.(그림 6 참조)

내부공간의 분할은 동시대의 다른 가도들과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직·수평의 단선은 한 칸을 구획하는 그리드(grid)와 같은 역할을 한다. 1×1칸을 기본 단위로 사각형의 단선으로 내부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리드의 축척(크기)은 가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체를 기준으로 가도1과 3은 각각 가로·세로 32mm와 34mm 정도의 정방형 그리드를 1칸으로 삼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가도2와 4에서는 각각 32mm×28mm, 37mm×32mm로 가로방향이 조금 넓은 장방형 그리드를 1칸으로 삼았다.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가도로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확한 자를 사용하여 작도한 것이 아니라 자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종이를 길게 접어 기준선을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가도4의 경우 본체(37mm×32mm)와 별채(35mm×29mm)의 사용 척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퇴칸의 경우 역시 본체에서는 1/2칸 규모인 것에 반하여 별채에서는 약 1/3 정도로 표현하였다.<sup>33)</sup> 동일한 지면에 이러한 차



<그림 7> 내부공간분할 표기방법

이를 두고 건물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가도의 제작에 건축가로서 축척의 개념을 갖고 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봉종택의 가도에서는 실선이 공간분할과 그리드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므로 실제 공간의 트임과 막힘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 구분 방법은 첫째 실명을 여백이나 선 위에 표기하는 것, 둘째 '通' / '壁'의 글자로 표기하는 것,<sup>34)</sup> 셋째 실명을 부연하는 것이다.<sup>35)</sup>(그림 7 참조)

가도에는 첫째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둘째 혹은 셋째 방법은 첫째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었다. 특히, 가도4에서는 문의 출입방식과 상부 다락의 공간 분할에 대해서 그림 7에서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며, 상부다락에 대한 구체적 공간 설명<sup>36)</sup>이

33) 4개의 가도에서 퇴칸은 1/2 또는 1/3, 쪽마루는 1/4 또는 1/6, 벽장은 1/3, 1/4 또는 1/6과 같은 비례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실제의 비례체계와 거의 같은 것이다.

34) 가도2는 중문간, 가도4는 중문간과 별채 중 ㄷ자집과 대청을 연결하는 부분에 명기하였는데, 공통적으로 '通'은 동선과 관련된 위치에 사용되었다.

35) 특히 상하의 공간분할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上樓', '下廚', '下庫'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上樓二間', '下廚三間半', '上樓二間通'과 같이 칸수와 트임 여부를 함께 표시하기도 하였다.

36) 중방과 작은 사랑방(책방) 사이의 부엌 상부다락을 그림 7에서와 같이 '上樓一間半內上中間上房用下一間下房用'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현된 것으로 보아 계획자가 주거공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명

가도의 실명은 각 실의 중앙 또는 단선 위에 표기하고 있다. 실명을 칸수와 함께 밝혀 놓기도 하였으며 상하구조인 경우 실명 앞에 '上', '下'를 명기하였다. 거의 대부분 도면의 남쪽 방향에서 세로쓰기를 하였다. 가도에서 나타난 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가도의 실명

구분	실명	가도 실명
방	상방*	上房(가도2,4) 또는 房
	중방*	中房(가도4) 또는 房
	그 외 방	房
마루	윗마루	堂, 무표기(가도2,3), 마루와 통합표기(가도4)
	누마루	樓堂(가도1), 虛堂(가도3)
	그 외 마루	堂
부엌	부엌	廚
	다락	樓
부속	벽장	莊
	고간	庫 또는 堂莊(가도4 별채)
	헛간	虛(가도1,4)
	마구간	廐
	문간	廚 또는 大門(가도3, 가도4 대문채)

\* 현 학봉종택에는 상방이 없기 때문에 중방을 상방이라 함.

방의 경우, '上房'과 '中房'을 제외하고 '房'으로만 표기하였고, 마루는 '堂'으로 통일하였으며,<sup>37)</sup> 부엌은 '廚'로 표기하였다. 또, 상부 수장공간인 다락은 '樓', 방과 연결된 수장공간인 벽장은 '莊', 고간은 '庫', 마구간은 '廐'를 사용하였다.

한편 일부 공간에 한정하여 사용된 실명도 있는데, 헛간을 지칭하는 '虛'(가도1, 4)는 안방 부엌 주위에 배치된 실로서 '庫'와 구분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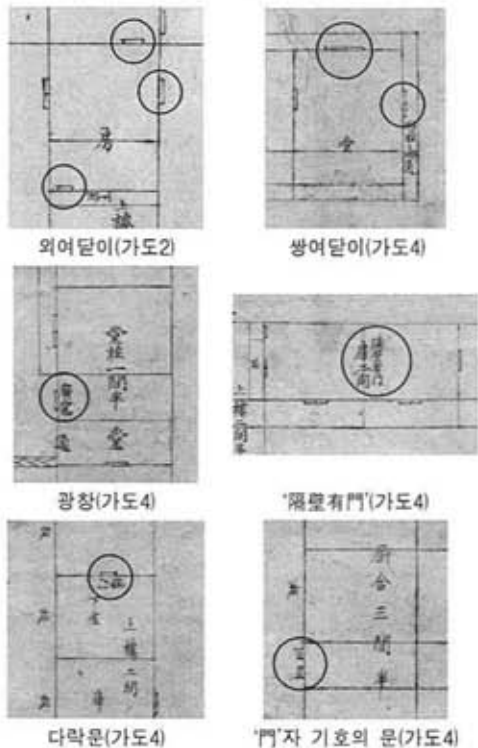
37) 마루와 관련된 '廳', '大廳', '廳'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가도 중 '廳'라는 용어는 가도 4의 사랑채 쪽마루를 '退低一層通'이라고 한 설명에서 유일하게 보인다.

리고 '樓堂'(가도1)과 '虛堂'(가도3)은 부엌의 상부에 설치된 공간의 실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樓堂'을 '樓'라고 하지 않고 '虛堂'을 '虛'라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을 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도 4의 별채에는 '堂莊'이라는 용어도 보이는데, 의미로 보아서는 마루가 깔린 수장공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堂庫'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庫'와 '莊'을 구분하여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보관하는 물건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가도에서 '庫'는 마당에서 출입하는 수장공간으로, '莊'은 방에서 사용하는 수장공간으로 구분되어 진다.

(3) 창호

학봉종택 가도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창호를 표기하고 있다. 가도에서 사용된 창호의 표현기법을 분류해 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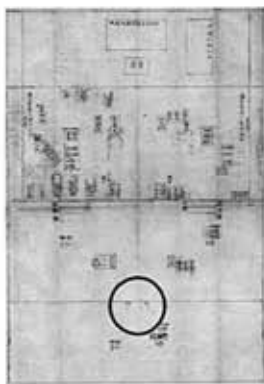


<그림 8> 가도에 사용된 창호 표현기법

가도에는 총 6가지의 창호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다. 가도 대부분의 창호는 외여단이나 쌍여단으로 볼 수 있는 기호로 표현되었는데, 벽선에 맞추어 긴 직사각형 하나 또는 두개를 그려서 외여단이나 쌍여단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이때 직사각형의 돌출방향은 개폐방향을 의미한다.

광창은 가도 4 중 '中房'과 별채의 '堂莊' 2곳에서 사용하였는데, 외여단이 창호와 동일하게 그린 후 옆에 '廣窓'이라고 명기하였다. 모두 외부 쪽으로 돌출되도록 표현하였다.

가도 4의 별채 안방 중앙 실선 위에 '房二間'이라고 실명과 칸수를 밝히고 '隔壁有門'이라고 부기한 것은 문의 형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여단이가 아님을 시사하며, 이 문이 여단이가 아닐 경우 미서기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방 부익의 아래 헛간에 보이는 '樓門'은 상부 다락문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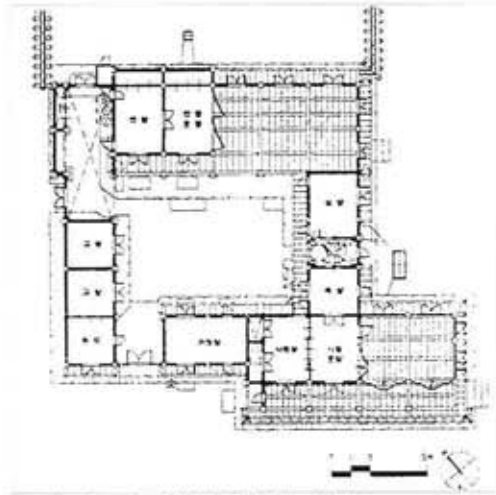


<그림 9> 학봉종택 소장 위치도

장된 위치도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림 9 참조) 다른 문들과 달리 '門'자를 기호화하여 표현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안마당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38) 상하부 창호의 표기를 구분한 예로서 같은 가도4 중 안방의 부익 북쪽에 '下又有門'이라는 설명도 있다.

39) 안동 은계종택 '38칸 가도'에서도 '門'자가 발견되지만 이는 기호라기보다는 글자로 여겨진다. (이호열, 「안동 은계종택 소장 가도를 통한 반가 평면형식 고찰」, 건축역사연구 56호, 2008. 2)



<그림 10> 현 학봉종택 본채 평면도  
(출처:김희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p. 254, 1999)

그 외 현재 학봉종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들이 걸개 또는 미단이 형식의 창호는 가도에서는 모두 외여단으로 표현하였다. 또, 외여단이 창호의 경우 크기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상부 다락 출입문은 다른 경우보다 작게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sup>40)</sup>

#### 4. 공간구성 및 평면 분석

##### 4-1. 본채의 형식과 규모

가도에 나타난 본채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닫힌 口자형으로 안방과 사랑방이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의 안방과 안대청이 함께 안마당에 면하고 있는 비대칭형<sup>41)</sup>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건 전의 학봉종택이 어떠한 형식이었는지 알

40) 쌍여단의 경우에도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그림 15 참조) 이에 대해서는 '4-4. 가도에서 보이는 조영 의도'에서 다루고자 한다.

41) 口자형 주거에서 전면 2칸 또는 3칸의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상방)이 놓여 안마당에 안대청만이 접하는 경우<천전(내앞)마을의 의성김씨 대종가, 양동마을의 서백당 및 관가정>를 대칭형으로 본다면 본 가도에서와 같이 안방과 안대청이 함께 안마당에 접하는 경우는 비대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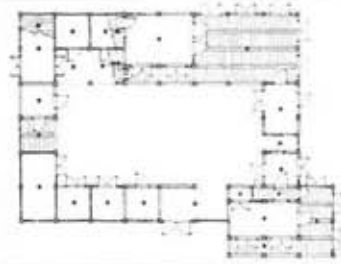
[표 4] 영역별 평면 비교분석

구 분	가도1	가도2	가도3	가도4	재이건 전 (추정)	
형식 및 규모	형식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규모*	8×6	6×7.5	6×8.5	6×7.5	6×6
	칸수**	34	39.5	35	35	28
	안채	15	21.5	18	21.5	15
	사랑채	7	10	6.5	5.5	7
	부속채	12	8	10.5	8	6
	안마당	6×3	4×4	4×5	4×4	4×3
안채	측면칸수 (마루)	2	2.5	2.5	2.5	2
	안방 부엌	1×2+1×1	1×3.5	1×3.5	1×3.5	1×3
	안방+퇴칸	2×1.5+2×0.5	2×1.5+2×0.5	2×2+2×0.5	2×1.5+2×0.5	2×1.5+2×0.5
	수장방식	側다락	後벽장	側벽장+側다락	後벽장	後벽장+側다락
	마루	3×2	3×2.5	2×2.5	3×2.5	3×2
	상방+마루	無	1×1.5	1×1	1×1.5+0.5	無
	중방+부엌	1.5+0.5	1.5+1.5	1.5+1	1.5+1.5	1.5+0.5
사랑채	크기	3×2+1	4×2.5	2×2+2.5×1	3×1.5+1	3×2+1
	사랑방	2+1	2+1.5	2+1.5	2+1	2+1
	마루	1×2	2×2.5	1×2+1×1.5	1×1.5	1×2
	수장	벽장	벽장+다락	벽장+다락	벽장+다락	벽장
	대문+부엌	2	2	1.5	2	2
부속채	진입방식	굴절	굴절	직진	굴절	굴절
	고간	5	4	4	4	4
	마굿간	-	1	1	1	-
	헛간	2	-	-	1	-
	방	2	1	1	-	-
	마루	1	-	-	-	-
	부엌	-	-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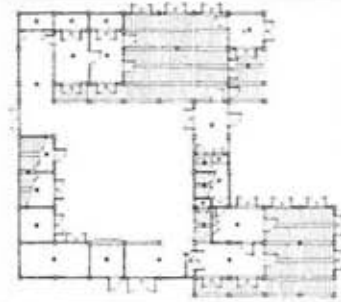
\* 물출부 제외 \*\* 쪽마루, 물출 다락, 상층 다락 제외

수는 없으나 이건 당시인 18세기 말 경에는 이러한 비대칭형 형식의 안채가 많이 건축되고 있었기 때문<sup>42)</sup>에 이를 전제로 가도가 작성되었고, 종택이 건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봉종택의 종가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종택의 이건과 건축에는 마을주변의 환경보다는 문중(집안)의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건 당시 동일한 비대칭형 안채에서도 다양



가도1



가도2



가도3



가도4

<그림 11> 가도 복원도

42) 김기주는 그의 논문(「16세기를 전후한 반가의 형식변화와 가례」, 건축역사연구 4호, 1993)에서 이러한 비대칭형 반가의 증가를 가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었음을 이들 4점의 가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현재 금계마을과 의성김씨 집안의 주거형식에도 대청형과 비대청형이 혼재되어 있는데,<sup>43)</sup> 이 또한 17~18세기 반가형식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는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가도에 나타난 본체는 현존하는 안동지역 口자 주거와 비교해 상당히 큰 규모<sup>44)</sup>라 할 수 있다. 가도의 본체는 전면은 6칸 또는 8칸이고, 측면은 6칸·7.5칸·8.5칸으로 재이건 전의 학봉종택 6×6칸(추정)보다 모두 크다.(표 4 참조) 총 칸수 역시 34~39.5칸으로 재이건 전인 약 28칸보다 더 크게 계획되었다.

안채의 규모에서 주목되는 계획안은 가도1과 가도3으로 가도 1의 경우는 안마당의 전면칸수를 6칸으로, 가도 3의 경우는 안마당의 측면칸수를 5칸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칸잡이를 채택하여 건축된 반가는 口자형 주택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5칸 규모로 계획된 본체의 보방향 길이(가도 1에서는 2칸)도 일반적인 반가의 규모보다는 큰 것이다.<sup>45)</sup> 안대청의 실용성에 비추어 그 규모를 크게 하려 했던 계획 의도로 볼 수 있다.

43) 곽와재, 간재종택, 칠계재종택은 대청형으로, 마애고택은 비대청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당종택은 원래 대청형이었으나 약 60년 전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비대청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장성진(경당종택 종손, 현 71세) 한편, 내앞의 의성김씨 대종가(대청형)를 포함한 안동의 파조에서 역시 귀봉종택(二子)은 비대청형, 운암종택(三子)은 대청형, 남악종택(五子)은 절충형으로 혼재되어 있다.

44)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본체의 돌출부를 제외한 칸수로 비교하였으며, 학봉종택과의 비교는 재이건 전 상황을 면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45) 비대청형 주거에서 안대청은 일반적으로 4칸을 넘지 않는다. 본체의 크기가 현 학봉종택보다도 큰 하회의 양진당이나 충효당도 4칸 규모이다.

## 4-2. 본채 평면분석

### (1) 안채 영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점의 가도에서 공통적으로 취한 공간구성 방식은 안방과 안대청을 모두 안마당에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자는 전면 2칸의 안방을 확정하고 안대청과 상방의 구성방식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4점의 가도를 살펴보면 안마당에 접하는 안대청 전면칸수를 2칸으로 하되 그 규모를 6칸으로 할 것인지 혹은 상방을 설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안대청 6칸 규모를 만족하고자 할 경우 상방의 설치가 힘들고(가도1), 상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6칸 안대청을 만족할 수 없는(가도3) 딜레마가 있었다. 하지만 계획자는 상방의 설치와 6칸 규모의 안대청을 가도2와 가도4에서와 같이 상방을 본채 외부로 돌출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면 2칸의 안방과 6칸의 안대청을 확보하면서도 안방과 안대청이 안마당에 접하는 전면칸수가 4칸을 넘지 않게 할 수 있었다.<sup>46)</sup> 안마당의 규모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6칸 규모의 안대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획의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현 학봉종택의 평면에 의하면 안대청과 상방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은 가도1의 안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학봉종택 상방 부분의 가구구조와 지붕형태를 맞배지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면<sup>47)</sup> 가도2나 가도4와 같이 상방을 돌출시키려 했던 것 같다. 안동지역의 口자 주거는 물론 상방이 없는 경우<sup>48)</sup>에서도 상방 부분을 맞배지

46) 비대청형 주거로서 학봉종택과 같은 6칸 규모의 안대청은 안동의 계남택과 영덕의 무안박씨종택 정도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주택은 모두 전면 3칸이 안마당에 접하므로 학봉종택보다 안마당의 규모가 큰 편이다.

47) 상방이 없는 형식으로 집을 지은 것은 건축 당시 사람이 다치는 화를 당해 목수가 중도에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김종길, 현 종손)

봉으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사진 4 참조)

안채의 공간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가도1에서 볼 수 있듯이 안방 옆으로 2칸 부엌이 횡으로 배치된 것이다. □자형 반가에서는 볼 수 없고 -자형이나 ㄱ자형에서나 볼 수 있는 예이기 때문이다.



학봉종택 안대청 상부

학봉종택 안대청 측면



학봉종택 지붕형태(Daum위성사진) 안동 경류정종택 안대청 측면

<사진 4> 상방 부분 가구구조 및 지붕형태

### (2) 사랑채 영역

사랑채는 가도2를 제외하고 본체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계획되었다. 그러나 가도4의 별채 대청을 감안한다면 작게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평면은 가도마다 크기와 형식이 다양한데, 특히 계획자는 사랑채 영역 중에서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책방)의 연결방식에 대해 여러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방이 인접하여 직접 통할 수 있는 계획안(가도2, 4)과 뒷마루를 통해 연결한 계획안(가도1), 각각의 마루를 갖추어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계획안(가도3)을 마련하였으며, 실제로는 가도1의 안을 채택하였다.<sup>4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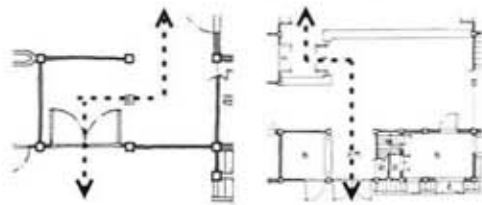
48) 안동지역의 □자 주거 중 상방의 위치에 마루를 두는 사례는 안동 경류정종택 외에도 몇몇의 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맞배지붕으로 처리한 사례는 찾을 수 없으며, 종택과 같이 넓은 안대청을 갖고 있지 않다.

49) 가도1의 계획안은 구 사랑채(현 소계서당)의 평면형식과 동일하다.

한편, 가도4의 사랑채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당시 쪽마루를 통해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 동선을 계획했다는 점이다.<sup>50)</sup> 이러한 계획자의 의도가 현 학봉종택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도의 계획이 실제로 세부적인 데까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도에서는 본체의 외부로 쪽마루가 연결되는 것에 반하여 현재는 안쪽으로 연결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 (3) 부속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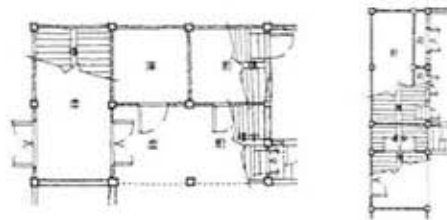
사랑채와 인접한 중문간의 경우 가도1, 2, 4에서는 2칸의 칸수를 배정하고 동선을 굴절시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가도3에서는 직진하여 출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안마당 가운데에 내외담을 두되 중문을 꺾어 배치함으로써 계획자가 모든 계획안에서 안채에 대한 시각적 차단 장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가도1, 2, 4

가도3

<중문의 진입방식>



가도1

가도3

<상부 다락구조>

<그림 12> 부속채 영역의 평면비교

50) 가도 4의 사랑채 쪽마루에는 '退低一層通'이라고 명기하였다.

51) 현재는 직진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는데, 면담결과 1964년 재이건 전에는 사랑채 옆에 문간이 있었고 문 앞에 뒤주가 있어 가도1, 2, 4와 같이 출입하였다고 한다.(김장규, 1936년생, 안동 서후 급계)



한편, 상부 다락에 대한 계획 중 가도 1의 상부 다락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sup>52)</sup> 하부에는 안방 부엌을 2칸 두고 서쪽에 고간과 헛간을 두었으며, 다시 2칸의 헛간을 연달아 배치하였다. 상부는 3×2칸의 넓은 상부다락을 두었는데, 2칸씩 나뉘어져 있다. 상부와 하부에서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부에서는 마당으로 부엌과 헛간의 전면 2칸을 남향하여 배치시킨 점을 들 수 있고 상부에서는 사찰에서나 보이는 6칸의 상부다락을 주거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엌과 수장의 기능을 집중화시켜 동선의 효율을 꾀하고, 여성의 휴게공간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樓堂'까지 갖춘 모습으로 18세기 후반에 사대부가 세심하게 여성의 공간을 계획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sup>53)</sup>

#### 4-3. 별채의 형식과 성격

##### (1) 형식

가도4의 별채는 5×4.5칸의 ㄷ자집과 전면의 4×2칸의 대청공간을 1칸의 방으로 연결하여 ㄷ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 담장으로써 구획하였다. 별채의 안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채의 모습을 축소한 듯 형식이 거의 같다. 담장의 전면에 배치된 대청은 6칸의 마루와 1.5칸의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방 뒤쪽에는 통과기능을 포함한 방 1칸을 두었다.

이 중에서 별채의 안채인 ㄷ자집<sup>54)</sup>은 구 사랑



<그림 13> 별채 안채의 평면 비교

채(현 소계서당)와 함께 가도와 실제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현존 유구로 현 ㄷ자집의 익사 부분 중 좌익사 1칸이 모자란 것을 제외하고는 가도의 계획대로 칸수가 이루어졌다. 안채 부분의 측면칸수가 15칸에서 1칸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길이에 있어서는 반대로 15칸에 가깝다.(그림 1 참조) 이 정도 규모의 집에서 15칸으로 안채의 측면 칸수를 처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계획자(중손)의 구조적 지식이 시공자(목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sup>55)</sup> 또 안방과 마루의 위치가 계획과는 반대로 배치되었는데,<sup>56)</sup> 본채의 남성 구역인 사랑채와 별채의 안채 구역인 부엌이 서로 맞대어 있는 가도의 배치보다 남녀유별의 원칙에 충실한 배치로 판단된다.(그림 13 참조)

##### (2) 성격

가도4의 별채는 의견상으로 독립된 주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의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별채의 안채는 본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전면의 대청은 반대로 본채의 사랑채보다 크고, 별채를 출입할 수 있는 독

52) 가도 1은 완성도가 가장 낮은 가도로 대부분의 창호 표기가 빠져있다. 그러나 상부 다락 주변에만 창호가 그려져 있어 가도1은 마치 상부 다락을 계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면처럼 보인다. 한편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창호는 상부 창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3) 현 학봉종택의 다락구조는 가도3의 계획안과 가장 가깝다. 다만 안채의 보방향 칸수가 2칸으로 줄어들면서 '虛室'의 공간이 제외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54) 현재 현 중손의 증조부대(12대손)에서 분가한 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김종성, 1951년 생, 성남 분당 거주)

55) 3장에서 가도의 단선이 벽선과 그리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가도의 계획자는 그 교차점을 기둥의 위치로 간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별채 안채에서는 기둥상부 구조(가구구조)에 대한 안목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6) 가도와 같이 건립된 이후 현재와 같은 방 구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립된 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별채는 본체에 종속된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로 보인다.

한편, 별채의 전면에 배치된 4x2칸의 대청 공간은 10대손 김진화가 이진한 '風雷軒'으로 추정된다.<sup>57)</sup> 현재 남아있는 건축 유구들과 대청의 위치, 6칸의 큰 마루를 가진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풍뢰헌은 별당이나 제청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sup>58)</sup>

풍뢰헌을 별당이나 제청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존 유구에 따른 일반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풍뢰헌과 연결된 ㄷ자집의 성격을 비교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가도 상에 나타난 배치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풍뢰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4-4. 가도에서 보이는 조영 의도

앞에서 4점의 가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획자의 조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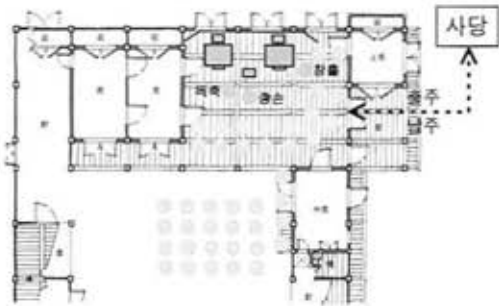
첫째, 본체의 안방과 사랑방은 대각선에 위치하며, 안채의 형식은 안방과 안대청이 함께 안마당에 접하는 비대칭형으로 계획하였다. 돌출부를 제외하고 전면 6칸으로 계획(가도1 제외)한 반면 측면칸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안채에서는 안방과 안대청이 마당에 2칸씩 면하여 안마당의 전면칸수를 4칸으로 계획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6칸 규모의 마루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때 상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방과 상방마루가 ㄷ자형 본체에서 돌출시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랑채의 경우 형식이 다양하지만 규모는 본체에 비해 비교적 작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결국 본체 중에서도 안채



<사진 5> 불천위 제사시, 합문례 (학봉 비위 제사, 2009. 4. 25)



<그림 14> 불천위 제사시 공간 사용 (현재 불천위 제사의 행례 공간을 가도4 복원도에 표시)

의 평면구성에 대한 주요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안대청은 일반 비대칭형 주거에서 보기 힘든 6칸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는 학봉종택 이진 계획의 중심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비대칭형의 주거에서 상방을 설치하지 않으면서까지 6칸의 비

교적 큰 안대청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가례의 중심 행례공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가례서에는 정침을 제례가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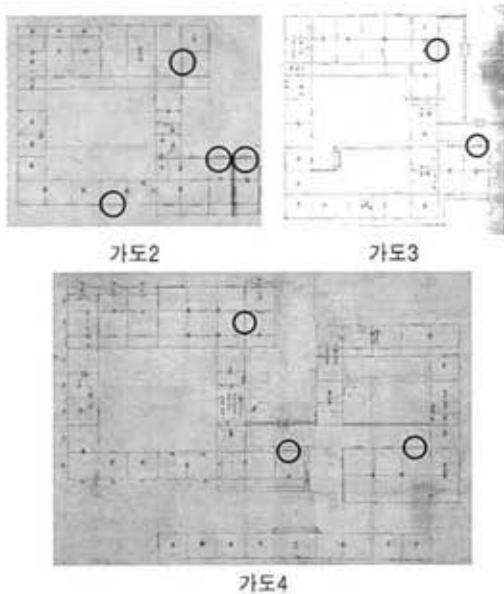


<사진 6> 불천위 제사시 납주 (학봉 비위 제사, 2009. 4. 25)

57) 앞 '2-2. 학봉종택의 건립과 이진' 참조

58) 학봉종택이 위치한 주변에 선산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묘하제실의 성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는 현 소재서당 뒷산인 소북산에 현 종손의 부친 묘소가 있음)

있고, 실제 반가에 있어서 정침인 안채를 제례의 중심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도 학봉종택에서는 안채의 마루에서 기제사와 불천위제사가 행하여진다. 가도에서 6칸의 안대청 공간을 확보하고 상방 앞에 비교적 넓은 마루를 둔 것도 종택에서 이루어지는 제례를 고려한 계획자의 조영 의도로 추정된다.



<그림 15> 쌍여닫이 창호를 크게 표기한 부분

한편, 계획자가 가례의 행례 절차를 배려하였음이 창호의 표현기법에서도 보인다. 가도에는 쌍여닫이 창호의 크기를 일부만 달리 표기한 곳이 있는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다. 가도1을 제외한 3점의 가도에서 쌍여닫이의 크기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는데, 3점의 가도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위치는 상방 아래 마루 부분과 사랑대청 후면<sup>59)</sup> 부분이다. 그 중 상방 아래 마루 부분과 같은 위치의 현 학봉종택 창호를 살펴보면 안대청의 다른 창호와는 달리 쌍여닫이 창호를 크게 표시한 부분의 창호는 머름이 없는 출입문의 기능, 즉 행례시 출주와 남주가 이루어

지는 출입문으로 사용된다.<sup>60)</sup> 이와 같이 비대칭형의 주거에서 이례적인 6칸의 안대청을 계획했던 가도 제작자가 다른 쌍여닫이 창호와 구분하여 표기한 이유는 가례 절차상 신주의 출주와 남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외에도 쌍여닫이 창호를 크게 표현한 곳은 별채 대청의 후면이다. 가도에서 쌍여닫이 창호를 크게 그렸던 공간, 즉 안대청, 사랑대청, 별채 대청과 같은 곳에서는 현재 반가에서 관행적으로 기제사와 불천위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은 가도의 별채 대청과 같은 모습이고, 충효당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가도의 사랑채 성격과 가깝다. 양진당의 사랑채에서 불천위와 기제사가, 충효당에서는 안마루에서 불천위와 기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도에서는 6칸의 마루를 각각 안채와 별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영 의도는 기제사와 불천위 제사의 행례 공간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61)</sup> 이때 사랑채는 남성의 개인적 공간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게 계획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채 대청이 아닌 ㄷ자집에 있다. 대개의 별당이나 제청이 독립적으로 건립되는 반면, 가도에서는 ㄷ자집이 대청과 연결되어 대청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도 상의 모습은 별채 대청인 풍뢰현이 사라지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sup>62)</sup>

60) 일반적으로 안대청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주와 남주는 상방 아래 반 칸의 풍뢰칸이나 상방(또는 중방) 아래 부엌칸을 통한다. 김기주, 「조선중기 이후 가례서와 반가에서의 행례공간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12, pp.57-63

61) 기제사와 불천위 제사의 공간을 구분하여 행하여지는 종택에는 서벽당, 쌍벽당, 중재고덕 등이 있으며, 특히 서벽당(현재 제청 없음)과 중재고덕의 경우, 기제사는 안마루, 불천위 제사는 제청으로 행례 장소를 달리한다. 김기주, 「조선중기 이후 가례서와 반가에서의 행례공간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12, pp.57-63

62) 풍뢰현에 대한 기록은 '哲宗八年丁巳(1857년)...秋修理

59) 구 사랑채의 경우, 가도와는 달리 현재 2면의 3개 창호가 모두 머름이 없는 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 5. 결론

17세기 초에 학봉의 손자인 김시추가 현재의 종택 자리에 건축하였던 학봉종택은 18세기 말 현재 소계서당이 있던 소복산 아래로 이건하게 되었다. 당시 이건을 주도하였던 인물은 김종수로 이건계획을 세우고 건축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현재 학봉종택에는 이건을 계획 하면서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4점의 가도가 있다. 당시 종손으로서 김종수나 김주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계획을 문중에서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가도를 제작하였다. 건축가로서의 사대부가 건축계획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 4점의 가도를 분석하여 이건 당시에 건축계획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것이 건축적으로 가도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알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우선 4점의 가도가 사당이나 부속채를 제외하고 본채를 중심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아 본채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반가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당이었지만 오히려 그 형식은 분명한 것이었으므로 계획도면이었던 가도에서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채의 계획에 있어서는 안채의 형식을 안방과 안대청이 모두 안마당에 접하는 비대칭형으로 설정하되 안마당의 크기를 전면 4칸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때 전면 2칸의 안방을 고정함으로써 안대청의 크기가 제한되는데, 안대청의 크기는 제례의 행례에 용이한 6칸 규모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상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방

부분을 본채의 외부로 돌출되도록 계획했어야만 했다. 비대칭형 안채에서 6칸 규모의 안대청과 상방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을 가도로 그려 비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가도1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건축되었지만 현재의 학봉종택 유구로 볼 때 원래는 상방을 돌출시켜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사랑채 영역에서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책방)과의 연결 방식이 문제였다. 서로 이웃할 것인지 혹은 마루를 가운데 두고 거리를 둘 것인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남아있는 현 소계서당의 평면으로 보면 뒷마루를 통해 연결한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쪽마루를 통하여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안의 시도는 제례와 같은 가례의 행례공간과 절차에 당시의 주거형식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채를 가례서의 정침과 같은 제례의 중심공간으로 간주하고, 제례시 보다 편리한 공간사용을 위해 비대칭형 주거에서 보기 힘든 6칸의 넓은 안대청을 계획한 것은 18세기 학봉종택 종손의 주거관을 보여준다. 또한 별채의 대청을 계획함으로써 기제사와 불천위 제사의 행례공간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보조하는 별도의 ㄷ자집을 함께 계획한 것은 학봉종택의 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가도의 표현방식과 기법은 가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일부 가도에서 보이는 방식과 같이 그리드를 만들어 그 위에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종이를 접거나 척도자를 사용하여 선을 그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1/100 정도의 축척(3cm/1칸)감이 가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외부공간의 구분은 담장과 문

風雷軒...('西山全集' 연보)라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김중성씨(1951년 생, 성남 분당 거주)에 따르면 1907년 11대 손 김홍락의 문집을 풍뢰현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으로, 내부공간의 분할은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실 내외부에 설치하는 창호와 상부다락, 벽장 등의 세부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가도를 바탕으로 복원도를 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실제의 건축 시공에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생각된다. 다만, 별채의 ㄷ자집 안채 부분에서 보이듯이 기둥의 배치와 상부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을 위하여 18세기 말 제작된 가도를 분석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사대부 종손의 역할과 당시 주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음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이견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던 학봉종택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본 연구에서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현락, 『金溪志』
2. 김홍락, 『西山全集』 (영인본), 경문사, 1982.
3. 안동군, 『국역 영가지』, 영남사, 1991.
4. 景泗流芳 編纂委員會, 『景泗流芳』 (의성김씨 청계공파 세적), 1974.
5. 국립문화재연구소, 『증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 김영사, 2003.
6. 김기주 외, 『16세기를 전후한 반가의 형식 변화와 가례』, 건축역사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1993.12.
7. 김기주 외, 『관혼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반가에서의 행례규범과 공간사용』, 건축역사연구 제3권 2호 통권 6호, 1994.12.
8. 김기주, 『조선중기 이후 가례서와 반가에서의 행례공간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제12호, 2003.6.
9. 김용수 편저, 『검제(金溪)마을』 (의성김씨

- 금계문중 자료집), 영남사, 발간연대 미상
10.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1. 박익수, 『구례 운조루의 조영에 관한 사료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권 2호 통권 6호, 1994.12.
12.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1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금계마을-천년불패의 땅』, 예문서원, 2000.
14. 안준호 외2, 『효경당계축문에 의한 파평윤씨 서운공파 고택의 원형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2007.4.
15. 유기원, 『경북 안동문화권 누재실의 건축적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16권 4호 통권 53호 2007.8.
16. 유기원, 『경북 예천군 재실건축의 유형과 평면 특성』,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제23권 제10호 통권 228호, 2007.10.
17. 이강근·홍승재, 『근대건축도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8. 이호열, 『안동 은계종택 소장 가도를 통한 반가 평면형식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7권 1호 통권 56호, 2008.2.
19. 정정남, 『가옥도형을 통해 본 18세기 한성부에 위치한 사대부의 가대와 주택』,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11.
20. 정정남, 『인사동 194번지의 도시적 변화와 18세기 한성부 구윤옥 가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3호 통권 58호, 2008.6.
21. 최수영 외2,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권 11호 통권 157권 2001.11.

접수(2009. 2. 17)  
 수정(1차:2009. 4. 20, 2차:2009. 4. 29)  
 게재확정(2009. 6. 30)



# A Study on The relocation pla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18th century's Jongtaek based on the analysis of Hakbong Gado

Ryu, Kee-Weon

(Ph.D)

Kim, Ki-Joo

(Prof.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 Abstract

Hakbongjongtaek(The head house of Uisong Kim family, 鶴峯宗宅), firstly built in the early 17th century, was moved to its neighboring place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man who led the relocation(移建) of the house was the eldest grandson of the family, Jong-soo, Kim. He made an overall plan and also participated in building the house. There remain four Gados(family paintings, 家圖) related to the relocation plan. This paper aims to make an analysis of these Gados, and through the analysis, to find what was the essential point of the relocation plan and how the point was represented in the painting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1. The main focus of relocation plan was the form of Anchaе(the inner house). Anchaе was designed as asymmetrical form, and restricted to four kan. Only Andaechung needed to be 6 kan size for religious ceremonies.

2. For the design of Sarangchaе, the displacement of large Sarangbang and small Sarangbang was an important issue. There were two ways of layout: parallel type and facing type. The latter was chosen.

3. The representation and techniques of Gado is quite concrete, in spite of differences among them. The expression of doors, windows, attic and kitchen wa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pace. Also the spatial division, which was expressed line on the grid, was based on the scaled ruler.

As we've seen before, painting the relocation plan was a kind of endeavors to make the housing type as a realization of Garye.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role of the eldest grandson of the family was quite important to carry out the plan. As well as, it was meaningful to examine Sadaebu (the aristocrat of Chosun)'s perception of housing.

---

Keywords: Gado(House painting, 家圖), Hakbongjongtaek(The head house of Uisong Kim family, 鶴峯宗宅), Relocation(移建) plan, □ shape housing, Andong(安東)

---